

이상돈의 '바른 소리'



사라진 국민통합의 기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힘주어 강조한 공약이 '국민 통합'과 '경제민주화'였다.

박 대통령은 또 '신뢰와 원칙'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평소에도 강조해 왔다.

그리고 박 대통령 임기 5년 중 2년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은 대부분 파기되었고, '국민 통합' 공약도 언제 그런 말이 있었는가 싶을 지경이 돼 버렸다.

지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이 상당한 부분 해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이념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고 말았다.

2007년 대선에서 실용과 중도를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 후로는 모든 국정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 임기 내내 평온한 날이 없었다.

이명박 정권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은 '박 전 대표'라고 불리면서 '여당 내의 야당'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언론도 '박 전 대표'를 적대시하거나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인혁당 사건, 정수장학회 문제 등 부친 시대의 과거사에 대

으로 생각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박 대통령을 도왔던 필자 역시 박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믿었다.

필자는 또한 박 대통령이 부친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를 깨끗하게 해소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기간 동안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인혁당 사건, 정수장학회 문제 등 부친 시대의 과거사에 대

해 진솔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대선 캠프인 자체가 북한한계선 공방 등 전형적인 색깔론으로 흘러갔다.

박 대통령의 임기 첫해는 인사 실패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허무하게 지나갔고, 임기 2년 차는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임기 두 해를 헛되이 보냈으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던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보내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임기 두 해를 헛되이 보냈으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던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보내 버린 것이다.

종교칼럼

벗어버릴 것과 덧입을 것



김성덕 광주 화성교회 담임목사

게 잘 맞지 않게 보였습니다. 양복 한 벌이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옷이 흔한 시대지만, 그 옛날에는 옷이 귀했습니다.

베리는 옷들이 있으면 사야 하는 옷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버릴 옷은 버리고 사야 할 옷은 삽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5, 8, 9절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과 서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은 우리에게 모두 관련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일 년간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2014년에 잘못된 나의 모습들이 2015년에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속에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너희는…공활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공활,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피차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유난히 추울 거라는 겨울에 우리 몸은 추위를 느껴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만은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기고

눈물의 연평도 더는 울리지 말자



김창석 수필가

50~60년대 애초 민 서정적 인기가요의 노랫말이 그로부터 60년 지난 후 포연의 공포 속에서 생존을 열사하고 또 다른 눈물의 연평도로 흐르킨다.

옛 시절 연평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바로 조상의 옛상에 오르는 뼈저서는 안 될 0순위 바닷고기 조기였다.

이처럼 한국적 갯마을의 향수가 짙은 연평도에 동족인 북한의 소행으로 지속을 뒤흔드는 포연이 터지고 우리 측에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조기를 들뜬 잡아 기폭을 올리고/ 온다던 그 배는 어이하여 아니오나/ 수평선 바라보며 그 이름 부르면/ 갈매기도 우는구나 눈물의 연평도/ 해 저른 배사장에 그 모습 그리면/ 등대불만 깜박이네 눈물의 연평도

행히 죽으란 법은 없다.

북한의 비이성적이고 악랄한 만행은 북한정권과 동포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하필이면 지난 추도식 뒷날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가 안전하겠느냐며 협박까지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저들의 수많은 만행을 겪으면서도 더 이상 확대를 자제하는 쪽

으로 신사적 타협과 외교채널을 통해 해소만 했지 속수무책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강대국과의 현란한 국방외교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만 했지 실질적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저들의 수많은 만행을 겪으면서도 더 이상 확대를 자제하는 쪽으로 신사적 타협과 외교채널을 통해 해소만 했지 속수무책이었다.

社說

농수산물 개방시대 활로 모색 사활 걸어야

2015년 새해는 한국경제의 어느 분야보다 농업이 격변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지난해 12월 호주와의 FTA 이어 1월부터는 캐나다와 FTA가 발효됐다.

한국은 지난 10년 사이 농업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무려 50여 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거의 모든 농수산물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한국은 지난 10년 사이 농업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무려 50여 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거의 모든 농수산물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을 갖추지 못한 채 무려 50여 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거의 모든 농수산물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따라서 정부는 '개방의 생태계'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부터는 농사 관련 직불금 증액과 영농 베타나미 발효 대기 중 이고 농업보다는 공산품 분야에서 불리하게 체결됐다고는 하지만 13억 거대 시장인 중국과 FTA도 올해 발효된다.

지방 죽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안 된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통해 일부 수도권 규제 해제를 추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민관 합동회의에서 논의 과제로 분류된 것은 ▲지역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사실상 허용돼 그동안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자 개발을 제한해왔던 경기도 등지방 큰 혜택

을 입을 게 자명하다.

수도권 규제 관련법은 이명박 정권에 수도 수차례 수정했다가 비수도권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기업들이 대량 수요처이자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하지 지방으로 내거가려 하겠다는 거. 경제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광주·전남은 기존 공장이나 내려를 계획으로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U턴' 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검토를 당장 접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과 지방의 피폐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연말 아프리카에 염소를 보낸 사연에 이어 신년엔 교복을 선물한 이야기다.

방 용봉님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다녀왔다.

“참 고맙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레 쓴 송년회 초청장을 받고 잠시 얼굴이나 비추자 싶었다.

“아름다운 가게는 오늘, 힘겨운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미래를 소중히 여기는 참 아름다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한책방은 기증자들이 보내준 책을 판 수익금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교복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고맙습니다”였다.

기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활동천사님들 고맙습니다. 한책방을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5년이 밝았다. 올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나누며 좋겠다. 갑사패에 적힌 ‘광주일보’와 ‘아름다운 가게’처럼 당신도 누군가의 벗이 될 수 있고, 그것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